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2022년 11월 15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² 	인구 1,599만 명 (2022 ^f)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중국 외교 
GDP 283.3억 달러 (2022 ^f) 	1인당GDP 1,771달러 (2022 ^f) 	통화단위 Riel 	환율(U\$기준) 4,102.50 (2022 ^f)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대표적 산업인 봉제 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2011~19년 간 연평균 7%대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1,070달러를 기록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분류 상 저중소득국에 편입되며 농업 중심의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났음.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 비중을 유지 중임.
- 한편,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석을 차지하며 집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유연한 외교관계를 표방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7. 10. 30 외교관계 재개 (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696,530	567,210	623,848	자동차, 직물, 기계, 의약품
수 입	335,922	318,112	341,516	의류, 산업용 전기기기, 잡화,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 현황(누계, 총투자 기준) 850건, 2,296,05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7.5	7.1	-3.1	3.0	5.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1.9	2.9	2.9	5.2
재정수지/GDP	0.7	3.0	-3.5	-5.9	-4.5

자료: IMF, EIU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19 진정 추세로 경기 회복 진행 중

- 봉제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2011~19년 간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했던 캄보디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여파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위축되어 -3.1%의 역성장에 그쳤음. 이후 2021년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며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며 3.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고, 2022년에는 제조업 부문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5%대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감소하고, 2022년 하반기 들어 수출 수주가 약세를 보이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도 나타남. 이처럼 새로운 경기하방 압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제는 관광 부문의 지속적인 회복과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23년에는 6%대 초반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2022년 5%대로 상승할 전망

- 캄보디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21년 중 3% 미만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2022년 들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연료 및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여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8%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 압력에 직면하여 올해는 5%대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IMF는 캄보디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4.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올해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2023년에는 연평균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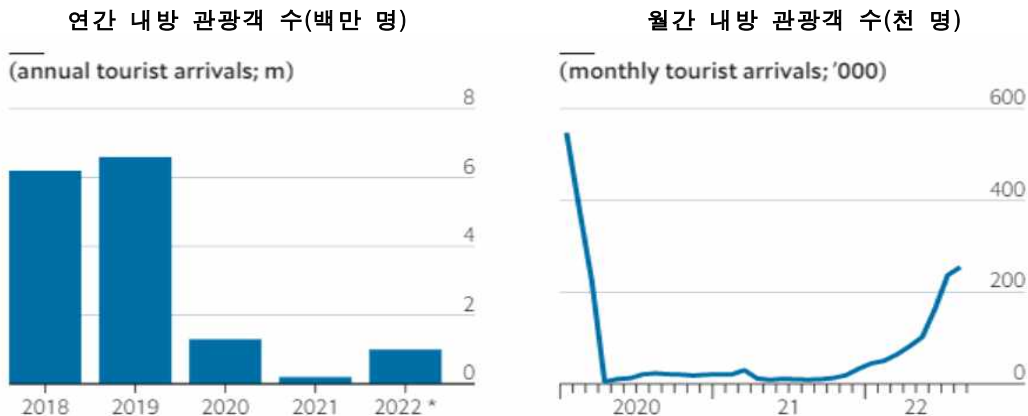
- 재정수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출과 봉쇄 조치에 따른 생산 위축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GDP 대비 -3.5%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도 GDP 대비 -5.9%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경제활동의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동 비율이 -4%대 중반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202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대를 회복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확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중기적으로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될 추가 재정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외차입 및 사상 첫 국채 발행도 계획 중임.

국내경제

관광 부문의 회복 속도는 중국 관광객 유입 재개 시점에 의해 좌우될 전망

- 관광업은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자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전 해인 2019년에는 약 6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내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약 49억 달러로 명목GDP의 약 18%에 해당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관광객 내방이 급감하면서 2021년 캄보디아에 내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9.6만 명에 그쳐 관광 부문이 심각한 침체를 겪었음. 그러나 2022년 들어 캄보디아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2022년 1~8월 중 약 99.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내방하면서 관광 부문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

[그림 1] 2018~22년 캄보디아의 관광 부문 경기 추이



출처: Ministry of Tourism of Cambodia; Haver Analytics.

- 관광 부문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음. 중국인 관광객은 2019년 캄보디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현재까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캄보디아 관광 수입의 완전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급감에 대응코자 2022년 9월 태국 정부와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합의하였음. 아울러 캄보디아 관광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 또는 재방문 외국인에게 캄보디아 내 토지 매입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논의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2,896	-4,065	-2,197	-12,321	-8,748
경상수지/GDP	-11.8	-15.0	-8.7	-46.8	-30.9
상 품 수 지	-5,844	-7,255	-2,544	-11,257	-8,612
상 품 수 출	12,963	14,986	18,522	19,469	23,850
상 품 수 입	18,806	22,242	21,066	30,726	32,462
외 환 보 유 액	13,220	16,880	18,404	16,928	16,354
총 외 채	13,522	15,329	17,562	18,269	19,185
총외채잔액/GDP	55.0	56.6	69.7	69.4	67.7
D.S.R.	6.4	6.4	6.8	7.1	5.8

자료: IMF, EIU

에너지 비용 및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상품은 2021년 상품수출의 41.2%를 차지한 의류와 신발로, 이의 생산에 소요 되는 면화 등 주요 원자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수출은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021년 상품수출의 32.7%가 미국으로의 수출, 17.0%가 EU로의 수출로 집계됨(UNCTADstat).
-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에너지 비용 및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 함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진 정세를 보이며 제조업 생산이 정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캄보디아는 귀금속의 수출입 비용이 역내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여 동남아시아의 금 수송 중심 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통제 강화의 결과 금 밀수 적발이 증 가하면서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저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금의 비축량과 거래 내역 중 밀수에 의한 부분은 통계에 포착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로부터 다른 나라들로 출하된 금의 양이 (밀수 적발로 인해) 2020~21년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 부분이 캄보디아의 상품수출에 반영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21년 46.8%에서 2022년 30.9%로 감소할 전망이다.

외채상환능력

양허성 차관이 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기외채상환위험은 낮은 수준

- 캄보디아의 외채규모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외차입으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양허성 차관이 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20% 미만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상품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D.S.R도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단기외채상환위험 및 채무조정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한편, 2020년 말 기준 캄보디아 외채의 약 44.3%를 중국으로부터의 차입이 점유하여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채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LDC(최빈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캄보디아 관세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의류 및 신발 수출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하였으나, 3분기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6%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최빈개발도상국 지위 혜택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장한 봉제산업은 2019년 캄보디아 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캄보디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27년으로 예상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 상실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주요 경쟁국 대비 높아진 인건비는 캄보디아의 수출 경쟁력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함.
- 과거 EU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EU로 수입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관세와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미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제공하였음. 이러한 혜택에 힘입어 2019년까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대상은 EU였으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미국이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0년 이후 캄보디아는 미국의 GSP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된다 해도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 및 신발은 관세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캄보디아의 봉제 부문 월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의 170달러보다 높은 194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등학교 진학 비율은 54.8%로 라오스(62.7%), 인도네시아(88.9%)에 비해 노동 경쟁력이 뒤쳐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캄보디아는 대형 화물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심해 항구의 부족으로 수출입 시 태국, 베트남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비용이 가중됨. 또한 의류 제품의 경우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한 검사 및 감사 비용의 증가도 주변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음.
- 통관 문제는 최근 사업자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개통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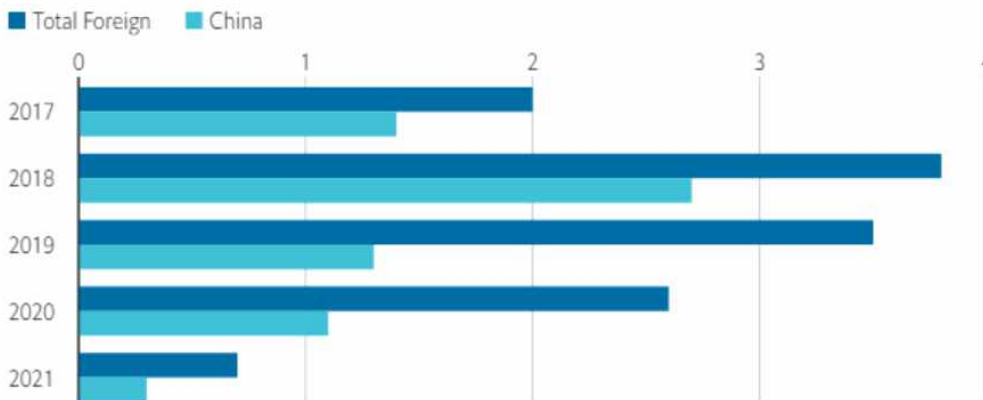
- 최근 캄보디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UNCTADstat에 의하면 2021년 양국 간의 교역액은 112억 달러(전체의 24.6%)에 달했으며, 중국은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7.0% 및 상품수입의 24.6%를 점유하였음. 2022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대 중국 상품수입액은 약 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음.
- 또한, 중국은 2020년 캄보디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3%를 차지하였고 2021년도에는 고정자산 투자가 더욱 증가하여 동 비중이 67%로 상승하였음. 지난 6월 캄보디아 광업에너지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65.7%를 중국 자본이 투자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생산했다고 밝혔음.
- 에너지 부문 외에도 20억 달러에 달하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통신,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도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제의존도는 이미 과중한 수준임.

구조적취약성

[그림 2] 중국이 캄보디아 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2017~21년)

China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Cambodia's foreign investment

(fixed assets investment projects approved, US\$ bn)



출처: Haver Analytics; EIU.

성장잠재력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관문이자 젊고 역동적인 노동력을 가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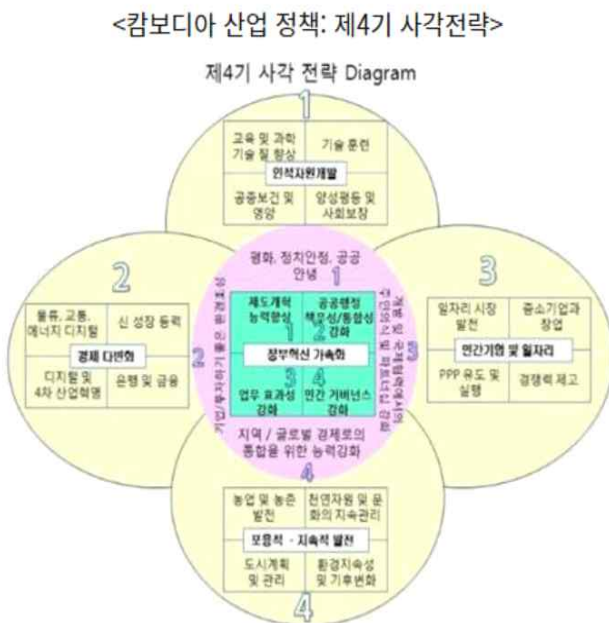
-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주요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또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가까워 대체 또는 보조 생산기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음.
- 캄보디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한국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량 증대의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최근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겪은 외국 기업들이 섬유,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전하고 있음.
- 캄보디아 통계청의 일반인구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08년 58.7%에서 2019년 62.0%로 증가하였음.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98.6%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젊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디지털 적응력이 뛰어난 신형 중산층이 새로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지리적 이점 이외에도 정부가 달러화 통용 등 투자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기울여, 2015~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캄보디아로의 FDI 유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옴.
- 또한 캄보디아 남부 캄팍 인근에 캄보디아 내 3번째로 큰 심해 항구의 건설 프로젝트(예산규모 15억 달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인근에 위치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및 프놈펜 경제특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국제무역거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정책성과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및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수립 이래 매 5년 주기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발표, 추진해 오고 있음.
- 2019~23년의 제4기 사각전략은 성장(기간 내 7%대 경제성장), 고용(청년층의 질적·양적 고용 확보), 형평성(빈곤인구 비율 10% 이하로 감축 및 빈곤층으로의 회귀 방지), 효율성(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제도적 능력 제고 및 거버넌스 강화)를 기본 원칙 및 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경제다변화, 인적자원 개발, 민간 부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포용적·지속적 발전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음.
-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을 수립, 추진 중임. 주요 목표는 ①2025년까지 산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특히 제조업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산업구조 개편 및 강화, ②2025년까지 수출품목 중 비(非)봉제제품과 가공농산물의 비중을 각각 15% 및 12%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 증대 및 품목 다변화, ③중소기업 등록률을 95%까지 제고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관리체계 강화 등임.

[그림 3] 제4기 사각전략의 주요 과제



자료: KOTRA, 캄보디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표 1] 캄보디아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의 주요 전략 및 내용

주요 전략	주요 내용
투자 촉진	- 투자환경 개선 -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확대 및 현대화	-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 등록률 확대 및 회계 실태 개선 - 농수산업 개발촉진
규제 환경 개선	- 무역촉진 및 수출확대 - 산업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강화 - 세금 납부 촉진 - 노동시장 개발
지원정책 간 조화	-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 과학, 기술, 혁신 촉진 -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 자원 조달 촉진

자료: KOTRA, 캄보디아 정부

정책성과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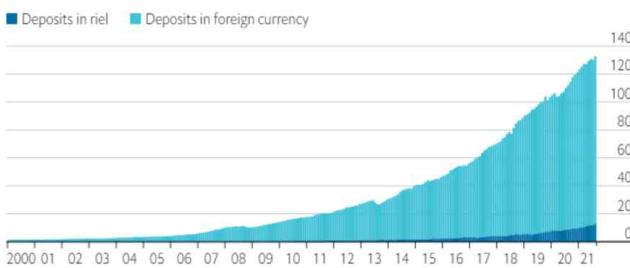
-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정부재원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하고,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협조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빠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
- 캄보디아는 2022년 9월 기준 전체 인구의 87%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음. 이는 베트남(86%), 태국(75%), 라오스(70%), 인도네시아(62%)보다 높은 수치로, 주변국들에 비해 발빠른 정부의 대처를 보여줌.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며,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
-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인하, 대출, 보증,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관광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농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유동성 확보를 통해 소득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

디지털 화폐를 통한 리엘화 사용 확대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증진

- NBC는 2020년 10월 디지털 화폐인 “바콩”을 출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캄보디아는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이 80%가 넘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경제위기에 취약하였으며, 성인의 은행 계좌 및 모바일 결제계좌 보유 비율은 ASEAN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이에 NBC는 미 달러화와 리엘화 모두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인 바콩을 출시하여, 현지 화폐의 사용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음.
- 2021년 캄보디아 국립은행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바콩의 출시 이후 바콩 이체건수는 약 570만 건으로, 이 중 미 달러화 거래가 450만 건, 리엘화 거래가 120만 건으로 리엘화 사용이 점차 증가했음.
- NBC가 지역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바콩 사용자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바콩 앱의 사용자 수는 2021년 11월 기준 캄보디아 인구의 거의 절반인 790만 명에 도달하였음.

[그림 4] 리엘화 및 외화 예치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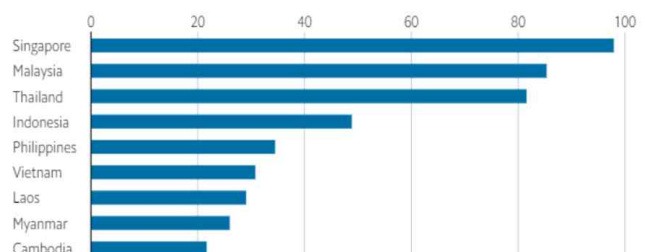
Cambodia will de-dollarise only gradually to avoid economic shocks (CR tm)



출처: National Bank of Cambodia; EIU

[그림 5] ASEAN 회원국들의 15세 이상 금융계좌 및 모바일 결제계좌 보유 비율

Cambodia's bank account coverage is the lowest in ASEAN (account ownership at a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money-service provider; % of population aged 15+)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IU

정치안정

훈센 총리, 장기집권하며 안정적 정권 유지

- 훈센 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훈센 총리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37년째 집권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 CPP는 2018년 총선에서 하원 전체 125석 중 125석 전부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정부기관과 군대, 사법부, 재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23년까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네의 권력 세습 추진, 야당 탄압 등의 문제 상존

- 훈센 총리는 자신의 장남인 훈마네에게 내각 직책을 맡겨 정치적 경험을 쌓도록 하여 2023년 선거 이후 자신의 뒤를 이어 총리직을 승계토록 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음.
- CPP는 2017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구국당(CNRP)이 전체 의석 수에서 CPP를 앞서자 CNRP의 해체를 주도하였음. 그 결과 CPP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석의 81%를 차지하였으며, 2023년 차기 총선에서도 여유있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 CPP는 CNRP 당원들 중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체포를 자행해 왔음. 2022년 3월 및 6월 캄보디아 법원은 몇몇 주요 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CNRP 지도자인 켄 소카에 대한 반역 재판은 2022년 1월 시작되었음. CPP는 CNRP에게 정권에 복종하며 미국이나 EU의 경제적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한 꼭두각시 야당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34위로 매우 낮은 편

- 캄보디아는 EIU가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점 2.9점으로 167개국 중 134위를 차지함. 집권 여당인 CPP에 대한 야당의 실질적인 견제 결여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의 결과 이전 130위에서 다소 하락한 순위를 기록함.
- 야당도 선거에 참여하지만 여당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야당의 해산이나 당원들의 탄압을 강행하였기에 '선거' 항목의 점수는 0점을 기록하였음.
- 민주주의 지수 중 '시민자유' 항목의 점수는 2020년 2.06에서 2021년 1.76으로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2021년 6월 3명의 환경운동가들이 군주제를 모욕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점과, 노동조합원이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였던 룡춘의 징역형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

사회안정

정부의 전국적인 도박 및 인신매매 단속 강화

- 최근 캄보디아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각국 언론의 보도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제적 평판이 손상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이 대두되자, 훈센 총리는 도박과 인신매매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명령했음. 캄보디아 정부는 잠재적인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찰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ASEAN 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되는 만큼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7월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3등급으로 강등시켰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grey list'에 포함시켰음.
- 최근 중국인들의 투자와 도박의 중심지가 된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인신매매 신고 건수가 212건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캄보디아가 높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약한 지배구조,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농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관광업에 악영향을 주는 홍수나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주요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이 잦은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농촌 등 저개발 지역에서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물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등 기후·자연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 영향은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젊은층이 풍부한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고, 다른 기본적 사회 인프라도 부족해 인적자원 개발에 제약이 있어 사회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 법의 역할이 약하고 정책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악화

- 2022년 7월, 캄보디아와 중국은 제6회 정부 간 조정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였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2021년 양국 간 교역액이 1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캄보디아 수출품 원자재의 최대 공급원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2016~18년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강제 해산 등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해 악화되었음. 미국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밀착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인도양으로 전개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림 해군 기지를 사용하는 비밀협약(캄보디아는 협약 체결을 부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여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 2021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캄보디아는 더욱 현저한 친중 국가로 자리매김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국민들 역시 미국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캄보디아 내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코로나19 백신 기증국가인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은 2021 ISEA-Yusof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응답자의 81.5%가 미국과 중국 중 전략적 파트너로 중국을 택해야 한다고 답변했음.
- 다만, IM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캄보디아 교역량은 2020년에 비해 32% 증가할 만큼 미국과의 악화된 관계 속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은 증가해왔음. 또한 미국은 2022년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ASEAN 의장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유연한 외교관계 표방

- 캄보디아는 2022년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캄보디아 리더십 하에서 ASEAN은 미얀마 위기나 남중국해와 관련된 영토·영해 분쟁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캄보디아는 ASEAN 내에서 어떠한 반중 성명이나 정책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과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중국의 편에 서지도 않을 것으로 보임.
- 2022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 철수에 관한 찬성표를 낸 것을 제외하면, 캄보디아는 국제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달리 중국과의 영토·영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기에 ASEAN 의장국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음.
- 한편, 2022년 3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와 일본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음.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합의하여, 시아누크빌에 새로운 컨테이너 항구를 개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유연한 외교관계를 표방함.

외채상환태도

낮은 연체비율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2년 6월 30일 기준 캄보디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35백만 달러(단기 27.7백만 달러, 중장기 7.3백만 달러)이며, 이 중 0.7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비율은 2%의 수준이나 금액이 미미하여 외채상환태도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2.06)	6등급 (2021.06)
Moody's	B2 (2022.11)	B2 (2019.10)

OECD, 2022년 6월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

- OECD는 2008년 6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07년 5월 캄보디아에 대해 B2를 부여하며 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한 뒤 2022년 11월 현재까지 등급 조정 없이 B2 등급을 유지 중임.
- * Fitch는 캄보디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는 의류 제조, 농업 및 관광업이 중심을 이루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부터 점차 회복 중임. 또한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모색하고 세금, 토지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부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세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2023년에는 경제성장이 금년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 훈센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CPP)은 야당인 구국당(CNRP)을 해체하고 주요 인물들을 체포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으며, 2023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네가 권력 세습을 위해 정치적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과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인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